

프렌들리 타마

FRIENDLY TAMA

VOL 136

2021

봄 호

다마시극제교류센터

동경 올림픽·패럴림픽 ~ 그리고 2020년 7월 24일
1964년 대회 10월 10일 자, 시작입니다! 쾌청한 하늘의 추억

동경 2020 대회, 드디어 정식 차례입니다. 제 32 회 올림픽은 7월 24일, 제 21 회 패럴림픽은 8월 24일이 개최식. 당신의 올림픽·패럴림픽은?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이트세트러

쿠베르탱 남작이 제창한 근대 올림픽 제 1 회 대회가 1896년 아테네에서의 개최로부터 세어서, 「도쿄 2020 대회」는 32 회째가 된다. 그동안 전쟁이나 테러 등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다. 당신에게는 올림픽·패럴림픽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림픽

☆ 제 1 회 아테네 대회·1896년

참가국 14, 참가 선수는 남자만 241명. 여자의 참가는 1900년 제 2 회 파리 대회때부터. 육상을 비롯한 10 경기, 43 종목, 육상경기에는 줄다리기가 있었다.

☆ 제 31 회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2016년

참가국 206, 참가선수 11237명. 새로운 경기는 남녀 7인제 럭비와 골프 (112년만에 부활)

*도쿄대회에서는 야구·소프트볼 (3대회만의 부활), 공수,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이 신종목으로서 더해진다.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의 단 하나의 금메달.

120년간, 200을 넘는 참가국 중에서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딱 메달이 금메달이었던 나라가 3개 있습니다.

♥ 요르단 (1980년 모스크바 대회로부터 10회 참가)

종목: 태권도 68킬로그램

선수: 아흐마드·아부가우시 Ahmad Abughaush 24세

결승전에서 러시아의 알렉세이·데니센코 선수를 꺾고 우승.

♥ 피지

종목: 7인제 럭비팀 (이 대회부터 참가 종목)

영국과의 결승전은 바이니마라마 수상도 관전, 피지의 첫 메달에 온나라가 환희했다.

♥ 코소보(유고슬라비아 붕괴후, 세르비아의 대표로서 참가했었으나 2014년에 드디어 코소보로 참가. 리오에서의 참가 선수는 8명)

종목: 여자 유도 52킬로그램

선수: 마일린다·켈멘디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선수를 꺾고 우승. 기수도 말았다.

☆ 가장 많이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마이클·펠프스(미국)

모든 선수가 목표로 하는 금메달, 이를 가장 많이 획득한 것은 미국 수영계의 총아, 마이클·펠프스. 1985년생, 신장 193cm, 체중 91kg. 15세로 시드니올림픽에 참가후, 아테네(2004) 베이징(2008) 런던(2012) 리우데자네이루(2016)과 연속참가. 크롤, 버터플라이를 특기로 하고 획득한 금메달은 23개, 베이징대회에서는 출장한 8레이스 모두 금메달을 땀다. 닉네임은 「물의 괴물」

*일본인 처음의 금메달은 1928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오다 미키오(삼단뛰기)쓰루타 요시유키(200m 평영) 두선수. 그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는 우치무라 고헤이 선수들 142명이 금메달을 쟁취했다.

☆ 귀에 쟁쟁하다 그 말... 나도 모르게 나온 이 한마디

「온세계의 쾌청한 가을날씨를 전부 도쿄에 가지고 온 것같은 맑은 가을날씨입니다」

…기타데 세이고로(NHK 아나운서, 도쿄대회)

「지금까지 살아 온것 중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 …이와사키 교코(바르셀로나 대회)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 …아리모리 유우코(애틀랜타 대회)

「완전 기분 좋다」 …기타지마 고스케(아테네 대회)

「기쁘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기타지마 고스케(베이징 대회)

「최고로 금, 최저라도 금」 …다니 료코(시드니 대회)

☆ 생각나는 그 장면... 명장면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여자 마라톤이 처음으로 엔트리된 1984 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관객이 기다리는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는 반주 정도로 달릴 수 없게되, 풍유병자같이 비틀거리며 골을 향해서 걷는다. 관객은 모두 기립하여 박수. 그리고 골한 선수는 스위스의 안데르센. 열사병이었다. 지금이라면 억지로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패럴림픽

*1948 년 독일 출신(영국에 망명)의 굿맨이 상이군인의 경기 대회를 스톡홀름 데빌 병원에서 개최. 그 후 1960 년, 유럽 5 개국이 기초가 되어 「국제 스톡홀름 데빌 대회」가 개최되고, 이것이 이후에 제 1 회 패럴림픽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 후 개최마다 장애의 종류나 경기 종목이 늘어갔다. 1988 년 서울 대회부터 올림픽과 같은 도시에서의 개최가 결정되고, 정식으로 「패럴림픽」이라는 명칭이 결정되었다.

*대회의 상징인 마크(패럴림픽 심볼)은 인간의 중요한 요소 「마음·스피릿」 「육체·바디」 「혼·마인드」를 빨강·파랑·초록의 3 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 1 회 대회 . . . 개최명칭은 「제 9 회 스톡홀름 데빌 경기대회」 참가국 23, 참가 선수 400 명

참가 경기는 양궁, 휠체어 펜싱, 휠체어 농구, 수영, 탁구, 육상의 6 경기

☆ 제 15 회 리오데자네이루 대회 참가국 159, 참가 선수 4, 342 명

참가 경기는 22 경기. 금·은·동메달 획득수는 중국이 1 위로 237 개

♥ 일본인 선수

수영의 나리타 마유미 선수가 2000 년 시드니 대회에서 금 6 개, 은 1 개를 획득, 4 년후인 아테네 대회에서는 금 7 개, 동 1 개. 이것은 한 선수가 차지한 최다의 메달수이다.

OPINION · 의견

독서는 나의 세계를 넓혀준다

가시와 아케미 (중국)

코로나에 의한 자숙생활이 시작되어 꼭 1 년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외출이 줄고, 재택시간이 늘어서 독서시간도 늘은 것. 독서의 좋은 점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 세계를 넓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상해유기]는 100 년전 상해의 광경을 눈앞에 비추어줍니다. 그 안에 서민생활의 힘든 것이나 급속히 서양화함에 따른 [마법의 도시]의 화려한 일면 등, 그리고 그가 접했던 당시의 유명한 정치가나 연예인들의 생생한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상해에 살았으므로 이상한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예를들면 아쿠타가와씨가 배에서 내렸던 부두 근처의 상해 번영의 심볼 [외백도교]는 저의 산보길중의 하나였습니다.

여성작가 중 하야시 마리코, 오가와 요코, 고이케 마리코, 기리노 나츠오의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최근에 기리노 나츠오가 상받은 연애소설[나니카아루]를 읽고, 소화시대에 활약한 명실공히 일본여성소설가 제 1 인자인 하야시 후미코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야시 후미코의 인생은 전쟁으로 번통되었습니다. [나니카아루]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과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읽고나서 [더 읽고싶다]는 아쉬운 마음이 짝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도서관에 가서 하야시 후미코의 책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조사해 보니 구 하야시 후미코 자택겸 기념관이 신주쿠구에 있다고 알았고,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고나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독서는 세계를 열어줄 뿐아니라 역사를 횡단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고 지금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음악 스포츠

자전거와 나

멘도자 오스카 (스페인)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4 살 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자전거를 아버지가 수리해 주셨습니다. 크로스 바와 시트가 높아서, 크로스바 밑에 한쪽발을 넣지 않으면 페달에 닿지 않고 자전거가 기울어져 버려서 타는법을 배우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야단을 맞았지만 아버지는 내 기술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느날 브레이크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발을 차바퀴 바깥쪽에 놓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을 때, 발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공중을 날아서 바위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으나 상처를 치료해주었으므로 그후 곧 다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이후 나는 늘 브레이크 바를 써서 스톱을 합니다. 아버지가 새로 경기용 자전거를 사주었던 때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누구에게 잠시동안 빌려주어 자전거를 잃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만 당시 살았던 조그만 마을에서는 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8 살 때 처음으로 마드리드의 중심부에 세워놓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전혀 무의미했습니다. 또 몇년후에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려고 멋진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것도 훔쳐가 버려서 오래 못갔습니다. 키만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경기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당시 공공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것이 금지였으므로 경찰로부터 [차도가 아닌 보도에서 타라] 라는 말을 몇번이나 들었습니다. 나는 경찰의 말을 안듣고 늘 차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불운하게도 경험이 적은 운전수의 차에 추돌되어서 그차를 뛰어넘어 트럭앞 아스팔트에 떨어졌습니다. 골절은 안되었지만 견게 될때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후 자전거의 포크를 도둑맞았습니다. 내가 다니던 자전거수리점 주인이 왜 포크를 가져갔나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런 타입의 자전거 스페어 파츠가 없는 것을 보고 이유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새로 포크를 입수하는데 꽤 비용이 들었습니다만 그 자전거가 맘에 들었으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2019 년 집근처의 육교에, 2020 년의 도쿄올림픽 자전거경기 로드레이스에서 그 도로가 사용된다는 횡단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만 지금의 코로나재난의 상황으로는 올림픽은 잊고 그 횡단막을 추억의 물건으로 남겨놓는 쪽이 합리적인 듯합니다.

활동소개

영어 살롱

우치다 이사오 (외국어 세미나부)

안녕하세요. 영어살롱의 정리역을 하는 우치다 이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TIC의 영어살롱에 대해 흥미를 가지신 일이 있으신지요? 영어살롱은 매월 마지막 주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TIC 활동실에서 개최됩니다. 매번 미리 스피커를 정해서 그사람의 20 내지 30분정도 스피치를 시작으로 한사람씩 순서대로 질문이나 관련 화제, 의견을 말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화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 꼭 소개하고 싶은 자신의 취미, 습관, 건강 비결등 여러가지 테마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교류합니다.

올해는 영어살롱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대책을 위하여 전반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고 10월이 되어서야 겨우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일수로서는 전년의 반입니다만, 금년도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1월 31일 지점으로) 실시한 것은 이하의 4회입니다

10월 26일 스피커 자신의 식사, 산보, 트림 등의 건강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11월 24일 치아의 건강에 대하여 올바른 양치법, 치아와 함께 중요한 혀의 청소, 불소치약 사용, 치간브러시 사용 등

12월 14일 두개의 실제로 일어난 인육식사건의 화제, 즉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과 안데스산맥의 비행기사고 때에 일어난 일

1월 25일 요코야마 길을, 잇폰스기공원에서 출발하여 다마히가시공원까지 약 4km를 약 2시간 걸쳐 답파한 이야기 보시다시피 매번 나오는 화제는 각각의 스피커의 개성에 따라서 다종다양합니다. 스피커가 말한 후에 한사람씩 질문이나 의견, 자신의 경험담 등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분분한 것도 재미있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스피커의 이야기에 흥미있게

귀여게 들으며 즐겁습니다. 금년도는 앞으로 1 회, 2 월 22 일이 남았을 뿐입니다만 내년도는 어떻게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이 수습되고 인원수 제한을 걱정하는 일없이 활기차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사람의 시선

많은 일본분들이 관광, 출장, 해외부임등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되는 일본과의 습관 차이, 놀라고 당황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

일본어 교실과 만난 여행

우키타 치에코 (일본어 세미나부)

인도차이나 반도 내륙의 작은 나라 라오스. 타이와의 국경을 메콩강이 흐르고, 중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로 둘러싸인 인구 700 만명이 사는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만한 크기의 나라이다. 그 북부에 위치하는 루앙파방은 일본으로 말하면 나라, 교토와 같은 옛도시로 1995 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관광도시이다. 처음 방문한 것이 20 년쯤 전이나, 적당한 게스트하우스가 많고, 멋진 레스토랑이나 술도 있는 등 적당히 관광화된 반면, 한가로운 분위기도 있어서 아늑하게 느껴 그후도 몇번 방문했다. 2012 년 여름 다시 방문했을 때, 묘한 일로부터 야간 일본어교실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흥미반으로 들여다 보았는데 그때의 체험이 잊혀지질 않았다. 나의 일어 자원봉사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학교 교실은 장소로 수강생은 중학생부터 사회인까지 10 에서 15 명. 젊은 라오스인 선생님 (일본어 가이드)는 일본체재의 경험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는 좀 이상한 일어를 했다. 네이티브일본인 대한영인듯하여 나도 회화연습 상대를 하게되고 결국 4 일간 다녔다. 덧붙여 말하면 무료는 아니고 3 개월에 2000 엔(당시)정도의 사례를 받았다. 왜 일어 공부를 할까? 선생님은 [관광객이 많아서]일을 할때에 영어는 물론. 또 하나언어를 하면 강하다. 그 하나가 일어라는 것이다. 당시 일어가 통하는 여행사는 2 곳으로 일어가이드는 15 에서 16 명. 일본인에게 여행지로서의 라오스느 이제부터 라는 시기였었다. 그렇군. 라오스의 일본어 교육사정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으나, JICA 나 국제교류기금등 정부베이스의 원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수도 비엔티안에, 라오스의 관광중심지라는 루앙파방에 단속적인 서포트가 있는듯했다. 그것을 메우고 있는 것이 이 교실 같은 활동이리라. 나중에 만난 현지주재의 일본인에 의하면, 라오스 각지에 소규모의 일어교실이 있으나, 강사의 질이나 경영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했다. [자원봉사로 괜찮다면 어디서나 환영할 필요] 라고 말했다. 나 자신은 이때의 체험을 계기로 일어교육강좌에 다녀서 지금 TIC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어교육사정에 복잡한 심정을 알고 라오스에서의 그 체험이 잊혀질 않는다. [자원봉사자로 라오스에 간다]는 결심은 아직 못하고 있으나. 2 년후 재방문시에는 이 일어교실은 없어졌었다. 코로나 재난하에 관광의 마을 루앙파방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어교실은 있는지. 안정이 되면 다시 찾아가 보고싶다.

클럽 . TIC 의 움직임

10/29~11/1 다마시민 문화제 TIC 전시

10/31 다마시민 문화제 · 베트남의 민족무용과 피리연주 팬션쇼

11/23 가을 산책 유우히의 언덕

1/9~3/27 일본어 자원봉사 지원 양성강좌

2 월말 외국어세미나 수료식(각 클래스에서)

2/27 [올림픽 · 패럴림픽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편집후기

신형 코로나의 감염이 시작되고나서, 눈깜짝할 사이에 1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스테이홈이 일상으로 되고, 비말감염을 막기위해서 마스크나 실드가 없이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변했습니다. 동경 2020 대회 개최에 대하여도, 의논이 분분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없이 꽃길을 걷는 날이 오기를 모두가 소원합니다.

다마시 국제교류센터

〒 206-0011 도쿄도 다마시 세키도 4-72 비타·코뮤네 7층 TEL 042-355-2118 FAX 042-355-2104 비타코뮤네 7층
발행: 홍보부 대표 모가미 쓰토무 편집 다케우치 가요코 번역 고바야시 마미

2021년 3 월 10 일 발행

* 당회보에의 의견과 희망을 보내주시시오.

* 또 당회보는 별지로 한글판과 중국어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로 연락해 주십시오. 보내 드립니다.

(표지: 피레네산맥의 황혼 그림: Susana Kariya)